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 영상제에서 나타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 분석
- 2002 대구·경북 청소년 영상제 중심으로 -

경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김 용 남

지도교수 김 성 민

2003년 8월

청소년 영상제에서 나타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분석

- 2002 대구·경북 청소년 영상제 중심으로 -

경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김 용 남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교수 김 성 민

2003년 8월

김용남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경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3년 8월

목 차

국문초록

영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3. 연구의 범위	5
II. 다큐멘터리의 정의와 장르연구	6
1. 다큐멘터리의 정의	6
2. 다큐멘터리 유형연구	9
3. 다큐멘터리 양식연구	14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1. 연구문제	19
2. 연구방법	20
1) 분석대상	20
2) 분석방법	20
IV. 연구분석 및 결과	22
1. 연구문제 1에 따른 영상제 출품작 현황 및 결과분석	22
1) 영상제 출품작 현황	22
2) 결과분석	26
2. 연구문제 2에 따른 작품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및 결과분석	29
1) 작품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29

2) 결과분석	31
3) 사례분석	35
3. 연구문제 3에 따른 작품 양식별 분류 및 결과	51
1) 작품 양식별 분류	51
2) 결과분석	53
3) 사례분석	56
 V. 결론	 70
1. 연구결과의 요약	70
2. 문제점	71
3. 결론	76
 참고문헌	 78
부록	83

표 목 차

<표1>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작품 출품현황	23
<표2> 청소년 화랑 영상제 작품 출품 현황	25
<표3> 동해 청소년 영상제 작품 출품 현황	26
<표4> 3개 영상제 작품별 출품 현황	28
<표5> 3개 영상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출품작 수	28
<표6> 화랑 영상제 다큐멘터리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30
<표7> 동해 영상제 다큐멘터리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31
<표8> 영상제별 프로그램 유형 분석	32
<표9> 영상제별 프로그램 유형별 분석	33
<표10> 동해 청소년 영상제 출품작 프로그램 유형별 · 소재별 분류	35
<표11> 화랑 영상제 다큐멘터리 작품 양식별 분류	52
<표12> 동해 영상제 다큐멘터리 작품 양식별 분류	53
<표13> 각 영상제 작품 양식별 분석	54

도 판 목 차

도판 1. A.D. in Mind (안동여자중학교)	36, 37, 38
도판 2. 교복, 그리고 우리들 (포항고등학교)	40, 41
도판 3. 배움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서일고등학교)	43, 44
도판 4. 천년의 숨결, 원주한지 (대성고등학교)	45, 46, 47
도판 5. 수림 (보영여자고등학교)	48, 49
도판 6. 2002 태극기 보고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57, 58
도판 7.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정윤제)	60
도판 8.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래고등학교)	62, 63
도판 9. 가정폭력 (성남고등학교)	65, 66

청소년 영상제에서 나타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분석

- 2002 대구·경북 청소년 영상제 중심으로 -

김 용 남

경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지도 교수 김 성 민)

(초록)

돈 탭스콧은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청소년들을 “N세대”라고 표현하였다. 이전의 세대가 TV를 통해 일방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는 세대라면, N세대는 쌍방향통신으로 논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능동적인 행동양식을 지녔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TV나 비디오, 사진과 같은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문자문화시대에서 직접적인 시각을 통한 의사소통의 영상문화시대로 뒤바뀌는 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 또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한층 기술적이고, 집약화 된 “영상”을 통해 그들의 의식과 문화, 생각들을 표현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주장을 ‘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청소년 영상제’를 통해 출품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이나 표현방식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2002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되었던 청소년 영상제들을 조사해 보았으며, 그 중 본 연구와 개연성이 높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

날레>, <청소년 화랑 영상제>, <동해 청소년 영상제> 등 3개 영상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정리했다.

둘째, 청소년들의 표현 양식 중 유형분석을 통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의 유형 중 청소년들의 생각과 주장이 함축되어있고, 문화의 생산자라는 입지에 맞는 “다큐멘터리” 장르를 선별하였고, 그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표현 양식의 경향을 조사해 보았다.

셋째, 빌 니콜스의 양식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양식 유형을 분류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자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해나가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02년도 대구·경북에서 개최되었던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작품들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큐멘터리’란 형식을 통하여 어떠한 형태와 경향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가에 대한 개량적 분석이다. 따라서, 청소년 영상물에 대한 질적인 면이나 영상교육의 문제점을 논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그들의 표현양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추세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대학입시란 관문에서 다소나마 돌과 구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영상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 영상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영상물에 대한 질적인 면을 논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다큐멘터리’란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양식을 통해 그들만의 생각과 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는 방향에서 마무리되고,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Analysis on the trend of documentary image on Youth Video Festival

- Based on 2002 Daegu · Gyeong-Buk

Youth Video Festival area -

Kim, Yong-nam

Department of Visual Art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min)

(Abstract)

Novelist Don Tapscott expressed youths as "N Generation" on his novel "The Rise of N Generation". As former generation was easy on just receiving knowledge or information through TV, N Generation takes more active actions in expressing themselves in a two way communication.

Since 1970s it was emerged into the mature industry society, nowadays we are facing the change from Letter Culture Era that caused by the improvement of media and copy method to the Film Culture Era that made communication possible through the direct visual

result. This change can be compared to the change from Stone Age to Metal Age in historic point of view.

Therefore, our younger generation expresses their behaviors, culture, and thoughts through technology-based and intensive images.

At the moment, I want to do a study on how the younger generation through the use of 'image', express their thoughts and insistence, and in the process, pursue a further study based on works done by "Youth Video Festival" to make a research on their thoughts and expressions.

First of all, studied Youth Video Festival's which was held in Daegu, Gyeong-Buk, and arranged through <Korea Junior high School Film Biennale>, <The Youth Hwalang Video Festival>, <The East Sea Youth Video Festival 2002> which was relevant to this study.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s that teenagers use- Drama, Documentary, Music Video's. "Documentary" was selected for it implemented their thoughts and opinion, which also can be viewed as producer of culture. Through the documentary image, made further studies on the trend of teenagers general expression.

Thirdly, based on the "Modes of Representation" of Bill Nichols, divided into 5 different types of formats, the teenagers were given a chance to talk about themselves, and made a research on how their means of expressing them was shown.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pieces which was held in Daegu, Gyeong-Buk on 2002 Youth Video Festival, and is a general analysis focused on how, through the expression Documentary, teenagers thoughts or expression is made.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mention about the quality or the problems of teenage images. This is simply about their means of expression, and what the trend is. In addi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try to provide another means for teenagers on their approach of college entrance, and to present more about the correct means of youth images.

Therefore, instead of talking about the quality of youths images, want to expression my intention of showing how much the teenagers actually understand the term, 'Documentary', and to conclude by through these formats understand their thoughts and opinions better.

I. 서론

1. 문제제기

흔히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일컬어 “N세대”¹⁾라는 표현을 한다. 한편 이 N세대를 일컬어 다른 말로 “영상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가곡이나 고전음악보다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CM송이나 유행가에 더욱 익숙해져 있고, 쉽게 따라 부르며, 책과 같은 인쇄매체보다도 화려한 영상미와 현란한 테크닉을 주무기로 하는 시각매체에 매료되어 있어 그것을 접하기를 더욱 원하는 상태를 일컬어 지칭한다. 또한 이 영상세대를 CTV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즉 컴퓨터(Computer), 텔레비전(Television), 비디오(Video)를 두루 섭렵하는 세대²⁾로, 이 세 가지 매체가 하나로 통합된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한층 기술적이고 집약적인 영상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 생각을 주도해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영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제한적 공간의 일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의 생산자이기보다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일방적 수용자의 입장에 더욱 치우쳐져 있다는 게 실정이다. 비록 영상세대라고는 하나 문화의 수용자의 입장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청소년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자

1) ‘네트 제너레이션(Net Generation)’의 준말

돈 텀스콧, 허운나, 유영만 공역,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물푸레, 1999.

2) <http://www.ubf.or.kr/news/206/206-15.htm>,
<http://www.dohwa.or.kr/5-5.htm>에서 인용

이자 생산자로서의 입장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교육 형태가 바로 ‘영상 만들기’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가치를 더 실현시키기 위해 열린교육과 대안교육이라는 실천 중심의 교육론이 대두되고 있는데³⁾, 바로 위에서 지적한 ‘영상 만들기’의 목적과 일맥상통 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청소년들의 ‘영상 만들기’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 사이의 다양한 행위를 문화의 주체자, 생산자로서의 가장 좋은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95년 소니(SONY)사의 DVC(Digital Video Cassette), 즉 6mm 디지털 비디오⁴⁾가 개발·시판되면서 방송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기존의 10kg에 달하는 무게의 베타캠(Betacam)⁵⁾의 역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1/8의 무게에 비하지 않

3) 배혜린, “한국 N세대 영상교육 현황과 열린 교실의 대안으로서의 영상교육”,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논문, 2000. p.3.

4) 이하, 6mm 카메라라고 지칭함.

1996년 규격화된 6mm 폭의 테이프를 기록매체로 한 SONY사의 Mini DVC (Digital Video Cassette) 포맷이다. DVC 포맷은 6.35mm 디지털 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12.7mm 테이프를 사용하는 베타캠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6mm 디지털 카메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1995년 세계최초로 개발을 했으나 베타캠 시장의 잠식을 우려해 시장출시를 미루었지만, 1996년 11월 1일, 도쿄 MX-TV가 1인 뉴스제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마쓰시다에서 먼저 출시를 해 위기를 느낀 나머지 급하게 시장 출시를 함.

5) 베타캠 VTR (BETACAM VTR) : 1/2인치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콤포넌트 VTR 시스템. 소니사가 1981년에 개발한 베타 일체형의 카메라의 의미가 그대로 방식의 이름이 되었다. 콤포넌트 기록 및 시분할 다중의 화질과 카세트형의 취급상 편리함 등이 평가되어 취재용뿐만 아니라 방송용 일반부터 업무용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3년에는 디지털 베타캠을 발표하였다.

는 6mm 카메라의 역할과 활동은 상상외의 센세이션과 감동을 주게 되었고⁶⁾, 점차 1인 제작 시스템⁷⁾의 개념까지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VJ 시스템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고하게 된 것이다.

1996년 9월 케이블 방송인 <Q채널>의 ‘아시아리포트’의 편성 이후 1997년 10월 지상파 <인천방송>의 ‘리얼 TV’는 이 VJ 시스템을 적극 도모하였고, 2000년 5월부터 방영된 <KBS>의 ‘VJ 특공대’는 높은 시청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VJ시스템의 한 경향으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VJ 시스템은 곧 청소년들의 관심과 영상 만들기의 한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6mm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발전된 디지털 컴퓨터 기술의 손쉬운 편집방식(예, 비선형 편집 : Non-Linear)이 더해져 이 영상세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화의 생산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1인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VJ 프로그램의 홍수현상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재의 빈약성과 제작환경의 열악으로 우리 방송의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단순한 흥미 위주의 눈요기 감을 보여 주는 것이 대부분이 되어 버렸고, 이를 바라 본 청소년들의 영상 만들기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되어, 처음 영상 만들기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사실이다.

6) 1997년 5월, 9월 MBC의 <신생아 병동 25시>, 이강국 연출.

600~800g 밖에 안 되는 미숙아들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방영, www.kaku55.co.kr 이강국의 생명연대 참조.

7) VJ란 제작당사자가 카메라를 직접·조작 취재한 뒤 얻어진 영상, 음성정보를 편집해 완성된 영상물로 제작하는 저널리스트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1인제작시스템’ (one-man Producing System)인 것이다.

1인 제작시스템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획·취재·편집·방송까지 전과정을 책임진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출품작의 대다수가 단편영화 형식의 드라마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부문도 양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종합적인 사고를 계발하는 데에 다큐멘터리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청소년들의 작품들 중에서 다큐멘터리 영상부문에 출품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그 작품들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현재의 청소년들의 영상제작에 있어서의 방법적 문제와 다큐멘터리의 개념적 의미를 정리해 보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영상부문에 서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의 올바른 인식을 갖추게 하고, 더욱 발전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의 전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큐멘터리의 개념과 장르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둘째,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들의 경향을 알아보며, 그 장르를 구분하여 다큐멘터리 영상의 출품 현황을 조사해 본다.

셋째, 다큐멘터리 영상 출품작들의 장르 분석 및 내용 분석을 해 보며,

넷째, 분석을 통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을 정리해 보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고로 하여, 올바른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002년 9월부터 대구·경상북도 내에서 개최되었던 총 7개의 청소년 영상제⁸⁾ 중에서 그 목적과 개연성이 높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동해 청소년 영상제>, <청소년 화랑 영상제> 등 3개의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다큐멘터리 부문의 영상물을 범위로 한정한다.

또한, 유형분석 및 양식연구에서는 <청소년 화랑 영상제>와 <동해 청소년 영상제>의 중·고등부 부문에 출품되었던 다큐멘터리 출품작으로 한정함을 밝힌다.

-
- 8) 안동대학교 주최 <학교 홍보 영상물 경연대회>
경운대학교 주최 <대구·경북 고등학생 방송작품 콘테스트>
대구미래대학 주최 <제16회 전국 고등학생 사진·영상 공모전>
계명문화대학 주최 <전국 고등학생 사진영상 공모전>
영남이공대학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경주대학교 주최 <제1회 청소년 화랑 영상제>
포항MBC, 포항YMCA 주최 <제1회 동해 청소년 영상제>

Ⅱ. 다큐멘터리의 정의와 장르연구

1. 다큐멘터리의 정의

다큐멘터리란 용어는 원래 ‘기록’記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다꾸망페르(*documentaire*)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에 영화에서 사용되었다. 본질적으로 기행영화(*travelogue*)로서, 기록물(*documentaires*)이라 불렸던 것들을 최초로 만든 영화인은 1890년대의 뤼미에르 형제라고 할 수 있다.⁹⁾ 하지만, 실제로 다큐멘터리란 이름이 붙여진 첫 작품은 프랑스인이 만든 <콩고로의 여행>(*Boyage au Congr*)이라는 순수한 기행영화였다. 여기에서의 ‘기록’이라는 말은 곧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과 그 자체의 기록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을 그 전제로 한다.¹⁰⁾

그러나 이 용어에 원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영국의 초기 다큐멘터리 영화운동을 주도하고 다큐멘터리 개념과 전통을 확립한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이었다. 그는 1926년 다큐멘터리 영화의 효시라 불리는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 1922作)를 제작한 로버트 플레허티(Robert Flaherty)의 영화 <모아나>(*Moana*, 1926作)의 시사회에서 ‘Documentar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큐멘터리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며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했으며,¹¹⁾

9)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진-이론과 비평」, 한나래, 1997, p.61.

10) Paulu, B. *British Broadcasting : Radio and Television in the United Kingdom*,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56), p.208.

11) 남성우, “TV다큐멘터리-그 논의를 위한 사적 고찰(1)”, 방송시대, 1992년

“다큐멘터리는 현실에 대한 창조적 반응임과 동시에 정보, 교육, 선전의 수단이어야 한다.” 했다.¹²⁾

‘Documentary’는 ‘가르친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document가 그 어원이다. 19세기 후반 <옥스포드(Oxford) 영어사전>에 따르면 documentary라는 용어는 교육(a lesson), 훈계(an admonition), 경고(a warning)를 의미한다. 그리어슨이 <모아나>를 기록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썼을 때 그는 아마도 오늘날의 document-사실적이고 근거가 있는 기록-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록했다고 본다. 즉 단순한 풍경사진이나 기행영화와 진정한 의미의 기록영화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던 프랑스어 ‘documentaire’를 생각했다고 본다.¹³⁾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윌리엄 블러엠(William A. Bluem)교수는 ‘다큐멘터리는 가장 감동적이고 실례(實例)를 찾는 사건과 환경의 기록’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다큐멘터리는 그것이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구적 드라마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데 다큐멘터리에서 기자적 센스와 사회적 의식 그리고 예술적 의도가 결합될 때 감동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또한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다큐멘터리 세계연맹(World Union of Documentary) 회의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을호, pp.356~357.

12) 수잔 헤이워드, 앞의 책, p.61.

13) 강만석 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정착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8, p.26.

14) Bluem, W. Documentary in American Television(N.Y. : Hastings House, 1965), p.9.

김우룡, 「방송학강의」, 나남, 1990, p.172에서 재인용.

“다큐멘터리 영화란 경제, 문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시키며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적 촬영이나 진지하고 이치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 해석되는 사실의 모든 면을 영화에 기록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라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⁵⁾

한편 로저 실버스톤(Roger Silverstone)은 다른 포맷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다큐멘터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실에 대한 보고가 순전한 사실 그 자체만이라면 이는 뉴스다. 측정된 사실에 바탕하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이나 논리에 호소하도록 처리하면 이는 드라마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면 오락이다. 이에 비해 사실에 바탕을 두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이다.”¹⁶⁾ 그러나 영화에서 시작한 다큐멘터리의 본질적 개발은 TV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TV는 영화에 비해 훨씬 강한 강점, 즉 사실적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성, 동시성은 물론 대량시청자의 확보 등으로 다큐멘터리가 영화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TV에서는 초기에 통용됐던 다큐멘터리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다큐멘터리 대신에 텔레멘터리(telementaries), 다큐드라마(docudramas), 팩트드라마(factdramas), 견고한 핵심을 가진 현실 드라마 등의 단어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

15) 전평국, 「영상다큐멘터리론」, 나남출판, 1995, pp.25~26.

16) 김성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방송문화, 1993년 7월호, p. 14.

던 의미로서의 다큐멘터리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¹⁷⁾

197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큐멘터리를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 정치, 경제문제 등 과거의 사건을 자료로 삼아 극화하지 않고 다루는 형식인데 일반적으로 필름과 테잎을 많이 사용한다.”고 정의하였다.¹⁸⁾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제프로그래ムの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서 다큐멘터리를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영상과 나레이션을 통해 논픽션의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중설득을 통한 교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문화적이고 교육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역사적 전기적 또는 자연관찰이나 여행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할 것 없이 사실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큐멘터리라고 명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2. 다큐멘터리 유형 연구

어떤 프로그램을 분류한다는 것은 동일한 실체(entites)를 함께 모으고, 동일하지 않은 실체를 분리시키는 유별화(grouping)의 절차를

17) Bluem, W. 앞의 책, p.8.

18) 최양묵,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한울아카데미, 2003, p.22.

19) 방송위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1993, p.49.

의미한다. 그리하여 실체의 특성이 그 실체 사이의 유사성이나 비유 사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첫째, 프로그램의 특징이 명확하게 개념정의 되어야 하며, 둘째,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이러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하는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특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망라적(exhaustive)이어야 하며, 대상 프로그램이 어느 하나에만 속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한다.²⁰⁾

다큐멘터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힐리우드(Robert Hilliard)의 방식에 따르면, 첫째, 플레허티의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 1922作)와 같이 자연의 장애요소와 미지의 자연세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인간의지와 숭고함을 담아내는 것으로, 바깥세계에 도전하는 인간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둘째, 로렌츠(Para Lorentz)의 <평원을 일구는 켕이>(*The Plow that Broke the Plains*, 1936作)와 <강>(*River*, 1937作) 처럼 관객으로 하여금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닫게 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상황의 극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셋째, 와트(Harry Watt)와 라이트(Basil Wright)가 공동 제작한 <야간 우편 열차>(*Night Mail*, 1936作)와 같이 대상에 대한 의도적 시각을 배제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특별한 시각이나 태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일상적인 다큐멘터리로 분류하고 있다.²¹⁾

20) 이준일 외, 「영상매체학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p.248~249.

한편, 에드가 윌리스(Edgar E. Willis)는 제작방식에 따라 다큐멘터리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 지었다.

첫째, 스튜디오 제작 다큐멘터리로서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스튜디오에서 완벽하게 쓰여진 대본을 가지고 만든 것.

둘째, 편집 다큐멘터리로서 일명 기존 자료 이용 다큐멘터리라고 한다. 즉 정부문서, 뉴스, 기타 보존자료를 이용해서 엮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쟁 기록물이나 역사물이 이에 따른다.

셋째, 특별 제작 다큐멘터리로 부분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녹음, 녹화, 취재, 촬영해서 만드는 경우로, 요즈음 다큐멘터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넷째, 사진 중심의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적 인물의 다큐멘터리나 전기물처럼 스틸 사진의 제구성을 통하여 제작되는 경우이다.²¹⁾

최양목의 연구에 따르면, 주제를 통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큐멘터리를 11가지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하는 역사 다큐멘터리,

둘째, 사회 다큐멘터리로 올바른 사회적 관계 인식이나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이나 제작 환경, 그리고 이익집단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

셋째, <인간시대>나 KBS의 <일요스페셜> 같은 주제와 주인공이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한 휴먼 다큐멘터리,

21) Robert L. Hilliard, Writing for Television and Radio (4th ed), New York:Hasting house, 1981, p.139.

22) 여면구,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6, pp.10~11.

넷째,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우주만물의 외경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 다큐멘터리,

다섯째, 소설, 시, 희곡, 미술, 음악, 조각 등 예술가의 열정이나, 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 다큐멘터리,

여섯째, 인간의지의 한계나 각종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노력과 모습을 다루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일곱째, 반도체나 컴퓨터, 정보통신 등 현대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과학분야를 다루는 과학 다큐멘터리,

여덟째, 현대의학과 한의학, 민간요법과 최신의학기재 등을 소재로 한 의학 다큐멘터리,

아홉째, 지구촌의 오지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탐험 다큐멘터리,

열째, 대중예술과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다큐멘터리,

열 한 번째, 공해나 자연파괴 현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환경 다큐멘터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요즈음처럼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갑작스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단기간내에 속도전으로 특집을 만들어 방영²³⁾하는 ‘인스턴트형 다큐멘터리’나 특별하지 않은 소재의 작은 아이тем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다큐멘터리’라는 그릇에 담은 ‘소프트 다큐멘터리’²⁴⁾ 등도 나타나고 있다²⁵⁾고 지적한다.

23)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가 발생했을 때 KBS <일요스페셜>은 만5일간(사건당일 화요일부터 일요일저녁까지)의 상황을 기획, 제작했었다.

24) 요즘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다큐멘터리 형태로서 KBS의 <특종 비디오 저널>, <VJ 특공대>, MBC의 <화제집중> 등이 있다.

25) 최양묵, 앞의 책, pp.40~48.

한국방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다큐멘터리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회 다큐멘터리는 사회문제, 경제문제 등의 주제를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KBS 리포트>, <세계는 지금> 같은 프로그램들이다.

둘째, 문화다큐멘터리는 문화, 기행 등의 주제를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오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의 문화유산>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과학다큐멘터리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전통 다큐멘터리이다.

넷째, 휴먼다큐멘터리로는 인간 및 인생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한 전통 다큐멘터리이다. <사람과 사람들>, <영상기록 병원 24시> 등이 있다.

다섯째, 역사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을 조명함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는 전통 다큐멘터리이다. <TV 조선왕조실록>, <TV 역사저널> 등이 있다.

여섯째, 자연다큐멘터리는 자연 생태계,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전통 다큐멘터리이다.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호수와 인간> 등이 있다.

일곱째, 다양한 주제를 매회 다루는 전통 다큐물이 있다. 사회, 자연, 인간, 역사, 과학 등의 주제를 넘나드는 시리즈물이라 하겠다. <KBS 일요스페셜>, <네트워크 우수작 시리즈> 등이 있다.

여덟째, 전통 다큐멘터리와는 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변형 다큐멘터리이다. <시사매거진 2580> 등과 같이 스튜디오 구성 부분이 많

거나, 재연 기법을 도입하였거나, 공상의 영역에 속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내용과 관련 없이 이에 속한다²⁶⁾고 한다.

텔레비전의 장르, 형식 구분은 제작과 편성 및 시청을 편리하게 하려는 편의적인 의도를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는 소재나 핵심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장르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유형화 기준의 광범위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뚜렷한 장르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행의 한 일부분처럼 장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텔레비전의 장르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장르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큐멘터리 양식 연구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역사에 따라 변화하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졌다.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영화작가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런 흐름의 밑바탕에는 극영화의 ‘허구성’과는 다르게 다큐멘터리는 ‘사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논쟁들은 과연 다큐멘터리가 사실성을 어떻게 획득해 나갈 수 있느냐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진실성’의 의미에 대한 차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있다. 진실성이란 논쟁이 많은 개념이며 시대마다 진실성의 의미가 달라져왔지만 나름대로의 진실성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작품을 제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6) 강만석 외, 앞의 글, pp. 130~131.

역시, 기존의 영화작가들 또한 진실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음 세대에 가서는 진실성의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는 바로 진실성의 의미 규정도 다큐멘터리의 정의만큼이나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²⁷⁾

그러므로, 청소년 영상제의 작품을 사실성이나 진실성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영상제의 작품을 표현양식에 따라 분석해 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니콜스는 여러 다양한 영화들에서 광범위한 공통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정한 관습을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에 대한 니콜스의 논의는 단순히 기법이나 표현의 관습만으로 사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는 영화작가의 철학,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제를 구축하는 방식 등이 포괄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어질 양식에 대한 논의가 편의상 기법적 특성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양식이 단순히 기법이나 표현의 관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가 항상 근저에 깔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빌 니콜스는 양식을 서술과 목소리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분류양식을 보자면 해설양식, 관찰양식, 상호작용양식, 성찰양식, 수행양식 등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²⁸⁾

해설양식은 관객을 향한 직접적인 해설에 의해 구성된다. 화면 밖

27) 서곡숙, “N세대 영상물의 한 양상연구”,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2001, p.85.

28) 황동미,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양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석사논문, 1995, pp.29~50. 발췌요약

에 있는(off-screen) 전지적 시점의 해설자는 영화작가의 사고 방식에 설정된 주제를 대신 전달하는 권위적 존재(voice of authority)이다. 흔히 해설은 성우나 전문 나레이터에 의해 감정이나 인격이 거세당한 채 영화 촬영이 끝난 후 녹음실에서 따로 녹음되어 촬영된 영상 위에 덧입혀진다. 감정과 개성, 인격이 없다고 해서 해설자가 부수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설자(의 해설)는 영화의 구성에 있어 기본 동력이다.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교육용 다큐멘터리, 기행영화, 과학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등이다.

관찰양식은 단순한 관찰자의 위치에 카메라와 작가가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어떤 언급이나 개입 없이 한 사건을 따라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러기 위해 보이스 오버 해설, 관찰된 영상과 화면 이외의 음악, 심지어는 자막이나 연출된 재현 그리고 인터뷰조차 기피의 대상이 된다. 촬영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롱 테이크(long take)’²⁹⁾가 주조를 이룬다. 해설양식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편집을 한다면 관찰양식은 공간적 통일성을 기준으로 장면을 자르고 이어 붙인다. 따라서 관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관찰 영화는 대개 ‘현재 시제’이다.

상호작용양식은 인터뷰가 주를 이루며 이런 인터뷰들을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한다. 다른 어떤 양식보다 인터뷰를 중시하며 출연자 개개인에 대한 작가의 개입을 보여준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평가하거나 그 평가를 위한 인터뷰, 자료화면 등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시

29) 롱 테이크(long take) : 쏫을 길게 하여 촬영하는 기법. 이는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감독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기 위한 시퀀스를 여러 개의 짧은 쏫으로 나누는 것과는 반대로 대상이 지닌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쏫의 단절을 배제하는 기법.

네마베리테'³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인들내용의 증언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는 대부분 영성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취약점이다.

성찰양식은 자기 성찰적(self-conscious)이다. 이전의 전통적인 양식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제기되던 모든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표현과정 자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즉 내용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해답이다. 이 양식은 이전의 양식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취했던 기술들을 일부러 방해하고, 드러내면서 사용한다. 또한 소재나 주제를 기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과 텍스트, 영화작가, 관객사이의 관계까지도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 따라서, 성찰양식에서는 접근 방식이나 형식 자체가 주제이거나 주제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수행양식은 94년 빌 니콜스가 자신의 저서 <흔들리는 경계>(Blur-red Boundaries)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그동안 다큐멘터리의 공통적 특성으로 여겨졌던 객관적 담론의 대상을 주관화함으로써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졌던 목표인 어떤 논쟁을 설득해내고 발전시켜 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양식이 지시(referential)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30) 시네마베리테(Cinema Verite) : 시네마베리테는 사건을 단지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현실적인 주제에 주로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실의 표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포착하는데 주력, 60년대 정치 사회적 격변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록영화 운동의 중요한 현대사조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프랑스 내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이런 전통에 영향을 받아 극영화 속에 직접적이 인터뷰 와 즉흥적인 상황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대 영화에서도 이런 기법은 곧잘 차용되는데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에서 케네디 암살사건을 반복 재구성하면서 추리해 가는 방식이 시네마 베리테 기법을 연상시킨다.

변증법적이고 변형적인 양식에서, 추상으로부터 구체로, 보편에서 특수로, 개인에서 전체로, 정치에서 개인으로 가는 사회적 객관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한다.

빌 니콜스의 양식 분류에 따라 모든 다큐멘터리가 정확하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특성상 두, 세 양식의 특성이 서로 결부되어 공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빌 니콜스의 양식 분류는 많은 다양한 작품들의 정리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작업을 초월하여 영화 제작 자체에도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식 연구는 다큐멘터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낮은 단계의 지위에서 나름대로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장르로의 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02년 9월에서부터 개최되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작품들 중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된 작품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의 소비자에서 당당히 문화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바로 ‘영상 만들기’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했다고는 하나, 기존의 영화나 방송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영상 만들기를 통해 기존의 영화나 방송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품 제작에 있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각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경향들을 살펴보고, 파악하여 나름대로의 올바른 방식을 제시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 중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출품된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 작품을 주제형식별(유형)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출품된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 작품을 빌 니콜스의 양식면에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최되었던 대구·경북 일원의 청소년 영상제 중 표본적으로 공모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의 개연성³¹⁾을 중심으로 영남이공대 주최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총 42작품), 경주대학교 주최 <청소년 화랑 영상제>(총 110작품) 그리고 포항MBC와 포항 YMCA가 공동 주최한 <동해 청소년 영상제> 출품작 중 대학부를 제외한 중·고등학생 작품(총 34작품)등 3개 대회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³²⁾

먼저 연구문제 1에 따라서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별 수량 조사는 위 3개 영상제를 모두 조사,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2에 따른 다큐멘터리 주제형식별 유형분석에 있어서는

31) 9월부터 총 7개의 영상제가 개최되었으나 안동대학교 주최의 영상제는 작품을 학교 홍보 영상물로 한정하였으며, 경운대학교 주최의 <대구·경북 고등학생 방송작품 콘테스트>는 비디오 영상물보다는 라디오 구성물에 더욱 치중되어 있어 여기에서 제외시켰으며, 대구미래대학교 계명문화대학에서 주최한 각각의 <전국 고등학생 사진·영상 공모전>은 그 공모전의 성격이 영상보다는 사진부문에 역점을 둔 대회이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 비엔날레>에 있어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주최측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출품부문 및 작품수량만을 조사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32) 각 부문별 유형과 양식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 근거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자와 같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2명과 영상제작반 학생 5명을 선별하여 각 분류기준을 설명한 후 작품 감상 후 협의하여 분류하였음.

<청소년 화랑 영상제>와 <동해 청소년 영상제> 2개 영상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분류 방식은 98년 한국방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정착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방식 중 청소년들의 제작 형태나 구성 형태 및 여건에 따라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변형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총 6개의 영역 즉, 각 작품들을 <사회 다큐멘터리>, <문화 다큐멘터리>, <과학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로 구분하여 분류·조사하였다. 주제형식별 유형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그 사례를 <청소년 화랑 영상제>와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들 중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1편씩 선정하여 작품의 구성 및 전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3에 따른 양식연구에서는 빌 니콜스의 연구방식에 따라서 <해설양식>, <관찰양식>, <상호작용양식>, <성찰양식>, <수행양식> 등 5개 양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범위는 <청소년 화랑 영상제>와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영상물로만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양식연구의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그 사례를 <청소년 화랑 영상제>와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들 중 각각의 양식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1편씩 선정하여 작품의 구성 및 전개 등을 살펴보았다.

IV. 연구분석 및 결과

1. 연구문제 1에 따른 영상제 출품작 현황 및 결과분석

1) 영상제 출품작 현황(3개 영상제)

(1) <제 1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 주최 : 영남이공대학

· 대회취지 : 21세기 정보화 및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영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위성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영상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상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술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의 경쟁 대열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젊은 일꾼을 키우고자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영상비엔날레를 통해 올바른 영상교육과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을 통한 청소년들이 제작한 각종 실험 창작 영상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영상 문화활성화에 조그만 발판의 장이 되고자 한다.

· 주제 : 학교+우리들, 뉴-테크놀로지와 우리,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 패션+개성시대

· 작품접수 기간 : 2002년 12월 2일 ~ 2002년 12월 10일

영남이공대학 주최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의 각 부문별 현황을 보면, 총 응모작품 수 42편 중 드라마가 13작품으로 31%의 비율을, 그 다음으로 실험영상이 8작품으로 24%의 비율을 보였으며, 다큐멘터리는 8작품으로, 뮤직비디오와 함께 19%의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광고 순의 비율을 보여,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출품작수가 <표 1>과 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작품 출품 현황

작품 유형	출품수	비율
드라마	13	31 %
뮤직비디오	8	19 %
애니메이션	2	5 %
다큐멘터리	8	19 %
실험영상	10	24 %
광고	1	2 %
계	42	100%

(2) <제 1회 청소년 화랑 영상제>

- 주최 : 경주대학교
- 대회취지 :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아 새롭게 형성된 영상환경에 발맞춰 한국의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영상세대들을 발굴한다.
- 주제 : 젊음과 감동
- 작품 접수기간 : 2002년 11월 4일 ~ 2002년 11월 30일

경주대학교 주최 <청소년 화랑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들의 각 부문별 현황을 보면, 총 응모작품 수 110편으로 지방 대회로서는 보기 드문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다.

각 부문별 출품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이 드라마가 총 49편으로 45%의 비율을 보여 총 응모작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다큐멘터리가 총 28편으로 25%의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뮤직비디오가 14편으로 13%의 비율을, 실험영상과 광고가 각각 7편으로 6%의 비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5편으로 5%의 비율을 보였다.

위 영상제에서는 다큐멘터리가 타 영상제보다는 다소 많은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청소년 화랑 영상제 작품 출품 현황

작품 유형	출품수	비율
드라마	49	45 %
뮤직비디오	14	13 %
애니메이션	5	5 %
다큐멘터리	28	25 %
실험영상	7	6 %
광고	7	6 %
계	110	100 %

(3) <제 1 회 동해 청소년 영상제>

- 주최 : 포항MBC, 포항YMCA
- 대회취지 :
 -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상문화 조성
 -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키우는 영상축제
 -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의 시각에서 풀어 가는 영상 대안 교육 제시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계기 마련
 -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세대간의 올바른 이해 도모
- 주제 : 영상을 갖고 놀고, 즐기며, 생각하자
- 작품 접수기간 : 2002년 11월 20일 ~ 11월 30일

포항MBC와 포항YMCA가 공동 주최한 <동해 청소년 영상제>는 대학부문과 중·고등부로 나뉘어져 총 78편이 응모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중·고등부에 출품된 34편에 대해 출품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영상제에서는 (표 3)과 같이 드라마가 14편으로 41%의 비율을 보였고, 다큐멘터리가 12편으로 35%의 비율을 보여, 타 영상제보다 다큐멘터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뮤직비디오가 7편으로 21%의 비율을, 마지막으로 광고가 1편 출품되어 3%의 비율을 보였다.

<표 3> 동해 청소년 영상제 작품 출품 현황

작품 유형	출품수	비율
드라마	14	41 %
뮤직비디오	7	21%
애니메이션	0	0 %
다큐멘터리	12	35 %
실험영상	0	0 %
광고	1	3 %
계	11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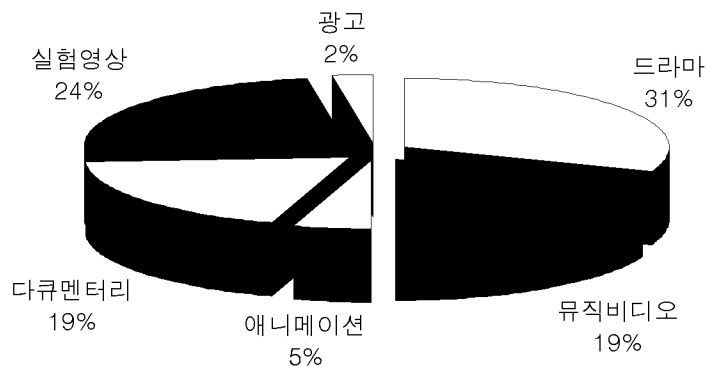
2) 결과분석

연구문제 1.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 중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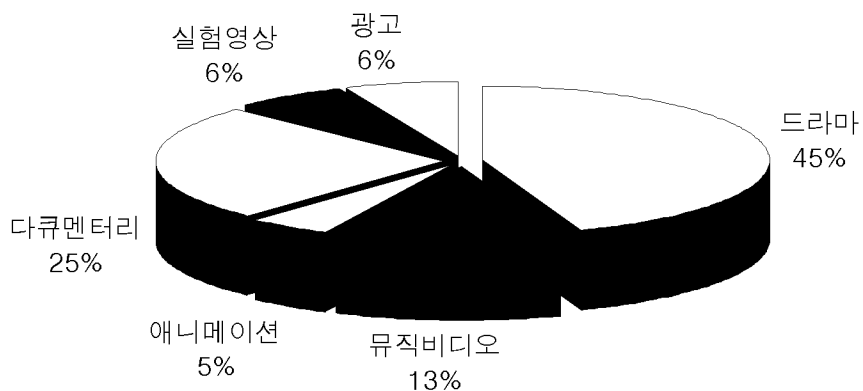
위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를 각각 수치로 환산하여 도표로 그려보면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표 5)의 결과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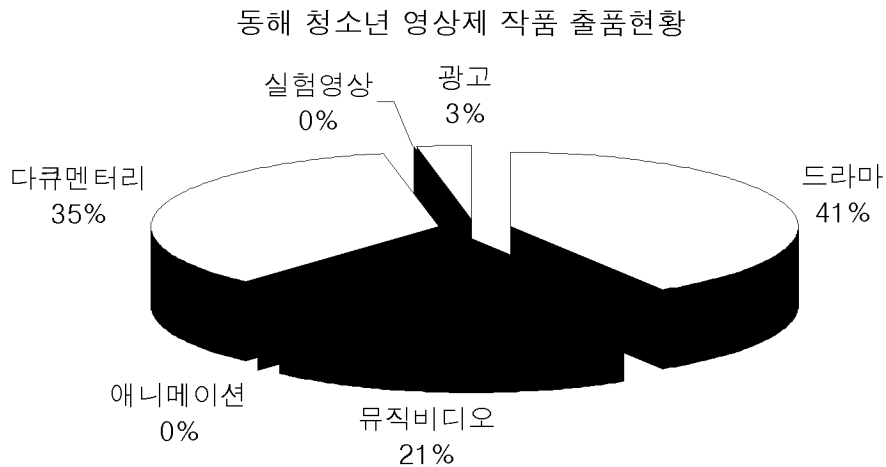
<표 4> 3개 영상제 작품별 출품현황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출품 현황



청소년 화랑영상제 작품 출품현황





<표 5> 3개 영상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출품작 수

영상제명	총 출품작수	다큐멘터리 출품수	비율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42	8	19.0 %
청소년 화랑 영상제	110	28	25.5 %
동해 청소년 영상제	34	12	35.3 %

위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난 비율을 본다면,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의 경우 총 출품작 수 42편 중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수는 8편으로 19%의 비율을 보였고, 청소년 화랑 영상제의 경우는 총 출품작 수 110편 중 28편으로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해 청소년 영상제의 경우는 총 출품작 수 34편 중 12편으

로 3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영상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출품작 수가 3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영상제는 동해 청소년 영상제 한 대회뿐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영상제에서 나타난 수치만을 볼 때, 각 유형별 출품편 수가 드라마 부문 다음으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출품작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영상 제작물이 흥미위주의 영상물 제작형태 보다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사실에 대한 진실성에 관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에 대한 많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연구문제 2에 따른 작품 주제형식별(유형)분류 및 결과분석

1) 작품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1) <제 1회 청소년 화랑 영상제>

청소년 화랑 영상제의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된 총 28편의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표6)과 같이 휴먼다큐멘터리와 사회다큐멘터리가 각각 9편으로 32%의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문화다큐멘터리가 6편으로 21%의 비율을, 역사다큐멘터리가 3편으로 11%, 자연다큐멘터리가 1편으로 4%의 비율을 보였다.

위 영상제는 6개 영역 중 과학다큐멘터리를 제외한 5개 영역에 작품이 출품되어 다양한 부문에 고루 출품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화랑 영상제 다큐멘터리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작품 유형	작품수	비율
사회다큐멘터리	9	32 %
문화다큐멘터리	6	21 %
과학다큐멘터리	0	0 %
휴먼다큐멘터리	9	32 %
역사다큐멘터리	3	11 %
자연다큐멘터리	1	4 %
합계	28	100 %

(2) <제 1회 동해 청소년 영상제>

동해 청소년 영상제의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된 총 12편의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휴먼다큐멘터리와 사회다큐멘터리가 각각 4편으로 34%의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문화다큐멘터리가 3편으로 25%의 비율을, 역사다큐멘터리가 1편으로 8%, 자연다큐멘터리와 과학다큐멘터리는 각각 0편으로 나타났다.

위 영상제는 6개 영역 중 자연다큐멘터리와 과학다큐멘터리가 출품되지 않아 휴먼다큐멘터리와 같은 일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보였

다.

<표 7> 동해 영상제 다큐멘터리 주제형식별(유형) 분류

작품 유형	작품수	비율
사회다큐멘터리	4	34 %
문화다큐멘터리	3	25 %
과학다큐멘터리	0	0 %
휴먼다큐멘터리	4	33 %
역사다큐멘터리	1	8 %
자연다큐멘터리	0	0 %
합계	12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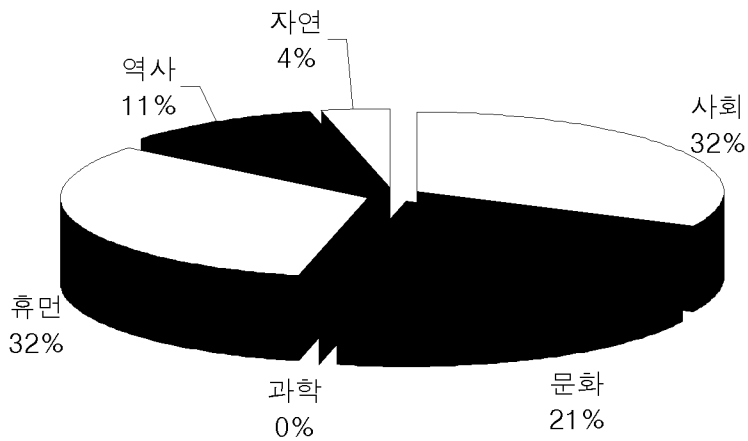
2) 결과분석

연구문제 2. 출품된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 작품을 주제형식별(유형)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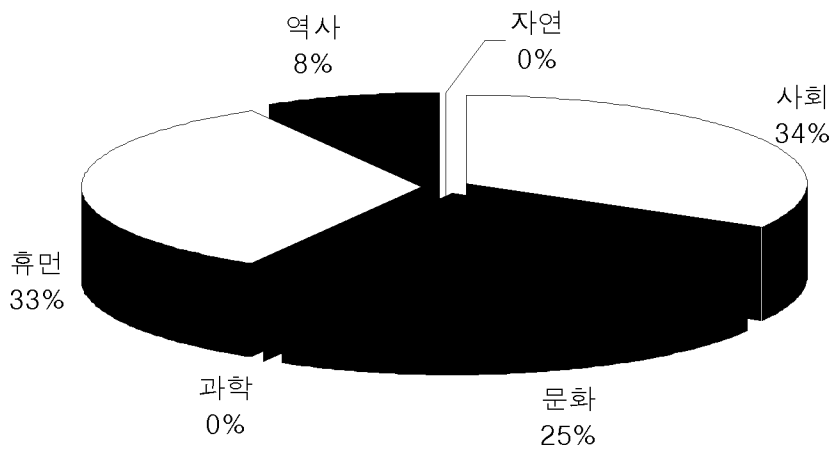
위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를 각각 수치로 환산하여 도표로 그려본 결과 아래의 (표 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8> 영상제별 프로그램 유형 분석

청소년화랑영상제 프로그램 유형 분석



동해 청소년 영상제 프로그램 유형 분석



위 2개의 영상제에서 나타난 유형 비율을 볼 때, 사회다큐멘터리와 휴먼다큐멘터리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에게 있어 기획 초기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제작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형별로 본다면 (표 9)와 같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 아래의 결과와 같은 휴먼다큐멘터리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기간동안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제작하는 사회다큐멘터리이다.

<표 9> 영상제별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영상제 구분	청소년 화랑 영상제		동해 청소년 영상제	
	작품 수	비율	작품수	비율
사회다큐멘터리	9	32%	4	34%
문화다큐멘터리	6	21%	3	25%
과학다큐멘터리	0	0%	0	0%
휴먼다큐멘터리	9	32%	4	33%
역사다큐멘터리	3	11%	1	8%
자연다큐멘터리	1	4%	0	0%

여기에서 위 표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면, 두 영상제 모두 휴먼다큐멘터리와 사회다큐멘터리가 각각 같은 편수가 출품되어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상물 제작에 있어 접근성이 가장 높은 부문이 바로 이 두 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과학분야나 역사 분야, 자연분야 등 어떠한 사실에 대한 가설이나 검증 등등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제작을 위한 많은 문헌연구와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도 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했다. 그러나 두 영상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학다큐멘터리나 자연다큐멘터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심도 있는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로서,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다큐멘터리 부문의 유형별·소재별 분류는 아래 (표 10)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다큐멘터리와 휴먼다큐멘터리 작품 각각 4편씩 총 8편의 소재를 분석해 본 결과 사회다큐멘터리에서는 2002 월드컵의 영향에 따라 한참 이슈가 되었던 태극기,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교복과 무관심, TV 속에서의 광고 등에 관한 소재가 다루어졌으며, 휴먼다큐멘터리에서는 청소년들의 꿈,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 핸드볼부원, 영화제작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등의 소재가 다루어졌다.

<표 10> 동해 청소년 영상제 출품작 프로그램

유형별 · 소재별 분류

제 목	유형별 분류	소재	제작
우리고장 선열들의 유적지 탐방	역사	신돌석 장군	송라중학교(포항)
대화가 필요해	사회	학생들과 교사간의 대화	금천중학교(청도)
KGM 포커스	휴먼	핸드볼 운동부	경주여중(경주)
우리들의 추억만들기	문화	학교	신광중학교(포항)
신광독서 영상제	문화	독서	신광중학교(포항)
A.D in Mind	사회	광고	안동여중(안동)
영화란 무엇인가	휴먼	영화	포항제철고(포항)
2002 태극기 보고서	사회	태극기	포항여전고(포항)
아직은...하지만,	휴먼	꿈	포항여전고(포항)
작은 세들의 등지	휴먼	봉사활동	포항여전고(포항)
그들만의 패션스토리	사회	패션	동지여상(포항)
교복 그리고 우리들	문화	교복	포항고(포항)

3) 사례분석

(1) <사회다큐멘터리> 유형

제목 : A.D. in Mind(동해 청소년 영상제 장려상 수상작)

제작 : 안동여자중학교 방송반(경북 안동)

상영시간 : 7분 30초

내용 : TV 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광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문화와 함께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올바른 광고문화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구성 : 인터뷰 중심의 구성



Title



N ; TV 프로그램 중의 절반이 광고입니다.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Q) 광고가 허위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A) 기능성 화장품, 다이어트식품 등의 과대과장 광고의 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공익광고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A) 마약 퇴치, 물 절약 등 계도적 의미의 광고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Q) 방송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광고는 무엇입니까?

A) 노골적인 선정적 장면 삽입 광고와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광고를 보고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광고가 있습니까?

A)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경우와 자극적인 광고가 방송될 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광고는 무엇입니까?

A) 상품성을 극대화시키는 광고와 공익과 계몽을 지향하는 광고가 가장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Q) 광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과 함께 소비를 조장하는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판 1. A.D. in Mind
(안동여자중학교)

Q) 허위 광고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A)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유발시킨다는 면에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 ; 앞으로 정부나 TV 매체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여 선정적이거나 허위 과장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시청자들에게 바르게 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들이 비교적 광고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광고의 부정적인 면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쳐 구성되어 있다. 다소 질문의 내용이 광고의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가 허위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방송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광고는 무엇입니까?’
- ‘광고를 보고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생각되는 광고가 있습니까?’
- ‘허위 광고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익광고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 ‘가장 인상 깊었던 광고는 무엇입니까?’
- ‘광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 7개의 질문 중 4개의 질문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었고, 2개의 질문은 이 영상물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 질문들이었으며, 마지막 1개의 질문은 광고가 사회의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허위광고에 답변으로는 ‘다이어트 식품’을 예시로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폐해성과 무조건 수용의 자세에서 선별적인 수용으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으며, 부적합한 광고에 대한 답변으로는 ‘휴대폰 광고(예, 스카이)’, ‘스낵류(예, 포카칩)’, ‘신문(예, 굿데이)’등의 경우를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선정적인 장면으로 채워지는 광고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충동구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고가 마냥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이나 공익광고를 통해서 사회의 계도적인 면에서도 광고가 앞장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질문 내용들과 답변들이 다소 인터뷰 기법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이 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마무리한 점을 볼 때 이 작품은 사회다큐멘터리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다큐멘터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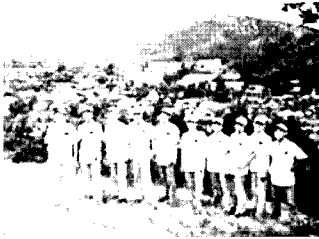
제목 : 교복, 그리고 우리들(동해 청소년 영상제 장려상 수상작)

제작 : 포항고등학교 방송반(경북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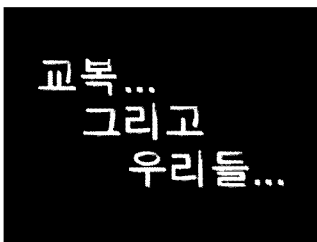
상영시간 : 11분

내용 :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생각과 옛날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교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구성 : 나레이션과 인터뷰를 통한 의견 제시



BGM



Ti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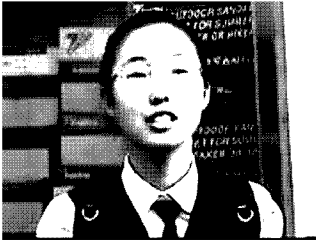


N ; 1981년 교복 자율화가 실시될 때까지 50년간 교복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교복이 다시 부활하여 현재 입고 있습니다.



Q) 교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불편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함으로 교복 착용을 반대합니다.



Q) 교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소속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 빈부격차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어 찬성합니다.



Q) 학창시절의 교복은 어떠했습니까?

A) 어려운 시절이라 교복도 없었고, 밀가루 푸대를 이용하는 등 아주 어렵게 교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Q) 교복이 나가야 할 방향은?

A) 교복을 입데,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디자인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하여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을 만들어야 하며, 학생들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N ; 교복을 입자는 것이 사회의 흐름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학교 주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들 노력해야 합니다.

도판 2. 교복, 그리고
우리들
(포항고등학교)

위 작품의 구성은 나레이션과 인터뷰를 통한 복합적인 구성이다.
먼저 교복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입게

된 시기와 과정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엔 인터뷰를 통해 교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찬성의 의견으로는 자신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빈부격차 해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복의 장점을, 반대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개성무시와 교복 착용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이 영상물의 중점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적인 극의 분위기를 나레이션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는데, 다음의 지문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교복을 입자는 것이 사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생활한복 등 학생들이 교복을 선정하는 학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인터뷰 속에서 예전의 학창시절의 교복에 대한 이야기와 교복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교복을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등의 내용과 소속감과 개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통해 교복이 단순히 학생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학창시절의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드려져야 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여러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휴먼다큐멘터리> 유형

제목 : 배움에 장애가 무슨 상관입니까?

(청소년 화랑 영상제 금상 수상작)

제작 : 서일고등학교 신용수(대전광역시)

상영시간 : 8분 50초

내용 : 지체장애 2급 류경애(23세)의 배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들에게도 당당히 배울 수 있는 학습권과, 그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성 : 나레이션 중심의 구성



Title



N ;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경애는 선천적으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다.



N ; 학교 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다. 항상 장애인 학교에서 차량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N ;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모두사랑장애인 학교는 오용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과 4개반의 4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용균(교장선생님) : 장애인 중에는 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울했던 교육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교육이란 정책으로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Q)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A) 이세구 자원봉사 교사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후원 자원 봉사자 교사를 모집하게 돼서 이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화 : 교장 - 공부 열심히 해, 그래 잘 가

경애 - 안녕히 계세요.

도판 3. 배움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대전 서일고등학교)

전반부는 지체장애 2급 ‘류경애’의 등교모습으로 시작된다. 등교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시간에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사랑장애인 야간학교 교장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권과 통합교육 아래서의 장애인 학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고자 하는 면을 나레이션의으로 설명해 간다.

또한 경애와의 인터뷰를 통해 꿈이 ‘사회복지사’란 것을 얘기하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장애인들 또한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편, 잔잔한 배경음악을 삽입함으로써 느린 화면의 전환 등을 이용하여 감성에 대해 호소하는 스타일로 구성되어있다.

‘경애’=‘장애인’라는 공식이 아니라 경애 스스로가 꿈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평범한 여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그린 전형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띠고 있다.

(4) <역사다큐멘터리> 유형

제목 : 천년의 숨결 원주한지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제작 : 대성고등학교 방송부(강원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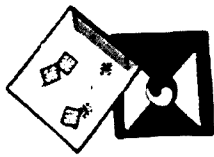
상영시간 : 13분 20초

내용 : 한지에 대한 역사와 제조과정, 한지문화제를 통해 우리 한지의 우수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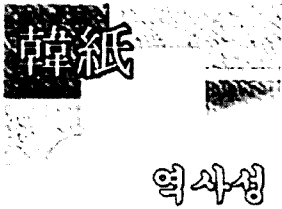
구성 : 나레이션 중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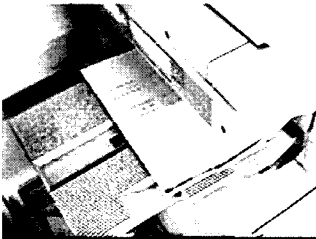
Title



N ; 한지는 우리의 얼굴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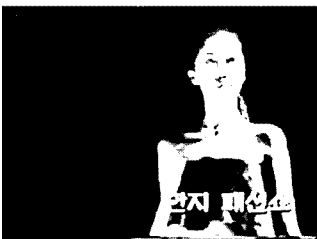
BGM, Sub Title



N ; 양지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한지는 쓰임새와 용도에서 양지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N ; 우리 전통의 한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경제적 원칙을 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으로 보이게 한다.



BGM



BGM, Sub Title



N ; 한지는 부드럽고 색감이 좋아 오래도록 정감을 느끼게 한다.

도판 4. 천년의 숨결
원주 한지
(대성고등학교)

원주한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물이다. 한지에 대한 역사성, 우수성, 현실성을 중심으로 총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은, 원주한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지의 기원, 한지 생산단지 등의 역사적 상황들을 나레이션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원주한지 문화제와 한지를 이용한 패션쇼, 종이공예 등을 소개하는 등 한지의 인식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장은 원주한지의 고장을 찾아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주한지의 제조공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한지문화제 집행위원장 김진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지에 대한 역사와 한지를 알리기 위해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 앞으로의 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고, 한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원주한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해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다큐멘터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 <자연다큐멘터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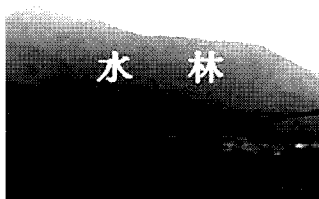
제목 : 수림(水林)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제작 : 보영여자고등학교 방송반(경기 동두천)

상영시간 : 8분 20초

내용 : 수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영상으로 말하고자한다.

구성 : 나레이션 중심의 구성



Title



B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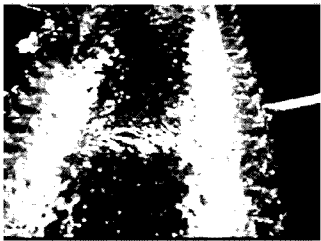
N ; 우리는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BGM, Sound Effect



N ; 길거리에 쌓여 가는 쓰레기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오물들로 인해 강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점점 심화되어 이젠 제 빛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N ; 더럽히기는 쉽지만, 다시 우리가 마실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애를 써야 한다.

도판 5. 수림
(보영여자고등학교)

기차 창 밖으로 보이는 뿌연 연기로 뒤덮힌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영상을 통해 대비하여 보여준다.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점점 파괴되어 사라져가고 있다는 아쉬움과 함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공장폐수, 가정에서의 생활하수의 폐해성을 전하고 있으며, 수질 정화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연에 대한 사랑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 양심을 통한 자연이 곧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배경음악과 함께 자성의 나레이션을 통해 자연

에 대한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연다큐멘터리 영상물이다.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청소년 화랑 영상제>, <동해 청소년 영상제> 등 총 3개 영상제에 출품된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총 48편이다. 앞서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전통 다큐멘터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형 구분 불능의 다큐멘터리, 일명 ‘소프트 다큐멘터리’라고 불리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가지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이 작품은 휴먼 다큐멘터리다, 사회 다큐멘터리다”라고 구분하기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도 포항고등학교 방송반 제작의 <교복, 그리고 우리들>을 놓고서도 문화다큐멘터리로 구분해야 하는지, 사회다큐멘터리로 구분해야 하는지, 또 대성고등학교 방송반 제작의 <천년의 순결, 원주 한지>란 작품을 놓고 볼 때에도 역사다큐멘터리인지, 문화다큐멘터리인지 등 그 유형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는 제작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없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도 전통적인 순수, 고급 다큐멘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인 고급 취향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롭고 저렴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선정적 이슈를 주로 다루는 쇼큐멘터리(shockumentaries)³³⁾나 잡지 스타일의 쇼(magazines-type show)³⁴⁾

33) Shock와 Documentary의 합성 신조어.

34) 잡지 스타일의 쇼(magazines-type show)란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어, 잡지처럼 여러 종류의 단편이나 다양한 소재

등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와 과학, 문화, 야생동물 등의 전통적 소재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혼합적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³⁵⁾고 한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BBC 방송 또한 시대의 조류에 편승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장르 유형 구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3에 따른 작품 양식별 분류 및 결과

1) 작품 양식별 분류

(1) <제 1 회 청소년 화랑 영상제>

청소년 화랑 영상제의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된 총 28편의 작품을 양식별로 분류해 본 결과 (표 11)과 같이 해설양식이 총 14편으로 총 출품수의 50%의 비율을 보였고, 관찰양식의 작품의 7편으로 25%의 비율을, 그 다음으로 인터뷰 중심의 상호작용 양식이 4편으로 14%, 성찰양식과 수행양식이 각각 2편과 1편 순으로 7%, 4%의 비율을 보였다.

위 영상제의 결과 해설양식이 50%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와 주제를 담은 이야기를 모아 엮은 데서 유래했다. 모닝 쇼나 특종 TV 연예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속한다.

35) 이동훈, “위기에 처한 유럽의 고급 다큐멘터리”, 동향과 분석 통권106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0.

나 하나의 양식 구조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5가지 양식 모두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출품되어 다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1> 화랑 영상제 다큐멘터리 작품 양식별 분류

양식별 분류	작품수	비율
해설양식	14	50 %
관찰양식	7	25 %
상호작용양식	4	14 %
성찰양식	2	7 %
수행양식	1	4 %
계	28	100%

(2) <제 1 회 동해 청소년 영상제>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 12편을 양식별로 분류해 본 결과 (표 12)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해설양식이 8편으로 총 출품편수의 66%를 차지했고, 상호작용양식과 성찰양식이 각각 2편으로 17%의 비율을 보였으나, 관찰양식과 수행양식은 단 한 작품도 없어 일부 양식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를 보였다.

<표 12> 동해 청소년 영상제 다큐멘터리 작품 양식별 분류

양식별 분류	작품수	비율
해설양식	8	66 %
관찰양식	0	0 %
상호작용양식	2	17 %
성찰양식	2	17 %
수행양식	0	0 %
계	12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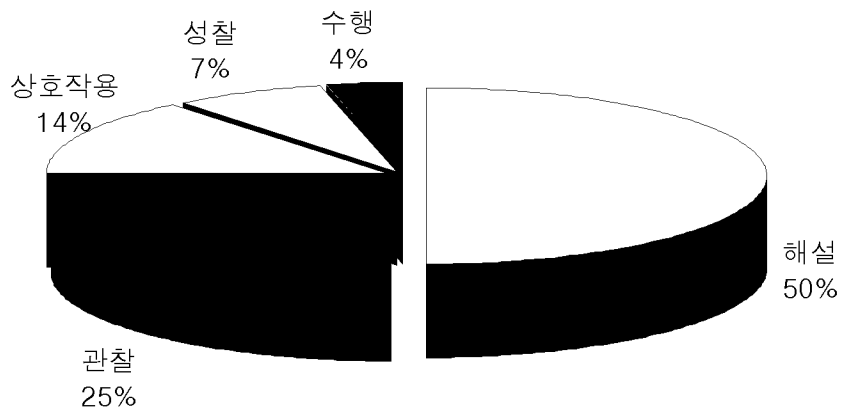
2) 결과분석

연구문제 3. 출품된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 작품을 빌 니콜스의 양식면에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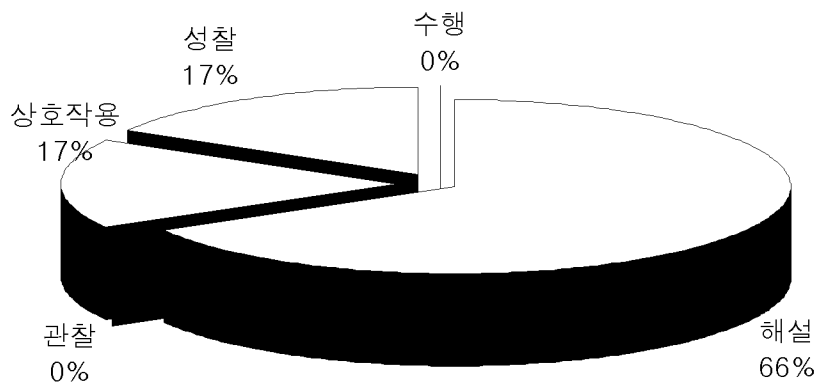
위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를 각각 수치로 환산하여 도표로 그려본 결과 아래의 (표 1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3> 각 영상제 작품 양식별 분석

청소년 화랑영상제 프로그램 양식 분석



동해 청소년 영상제 프로그램 양식 분석



위 2개의 영상제에서 나타난 양식별 분류 현황을 보자면 해설양식이 <청소년 화랑 영상제>에서는 14편으로 총 28편 중 50%의 비율을 보였으며,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서는 총 출품작수 12편 중 8편으로 무려 66%의 높은 비율을 보여 심각한 양식 편중 현상을 보였다. 연구문제 2에서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 영상물 중 사회다큐멘터리와 휴먼다큐멘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해설양식은 교훈적인 목적을 위해 권위적인 목소리의 화면 밖 해설이 주로 사용된다. 곧 해설은 눈으로 보는 영상을 지배하며, 영상의 전개적 논리를 시각보다는 청각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물의 구성력이나 테크닉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영상보다는 해설로써 극의 흐름과 부족함을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많으며, 한편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 해설양식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뷰 중심의 상호작용 양식을 보자면, <청소년 화랑 영상제>의 경우 모두 4편으로 14%의 비율을 보였고, <동해 청소년 영상제>에서는 2편으로 17%의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해설양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비율이지만, 해설과 더불어 극을 전개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인터뷰를 이용한 양식을 볼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작품수가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를 일컬어 ‘다큐멘터리의 심장’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진실감 있고, 신뢰감 있게 만들어주며, 제작자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혹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거짓없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³⁶⁾ 하지만 영상

제에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들이 인터뷰 내용이나 기법이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단답식의 간단한 답변이나 어떠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일방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확인을 위한 인터뷰가 사용되어 인터뷰 기법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들어냈다.

3) 사례분석

(1) 해설양식 사례분석

제목 : 2002 태극기보고서(동해 청소년 영상제 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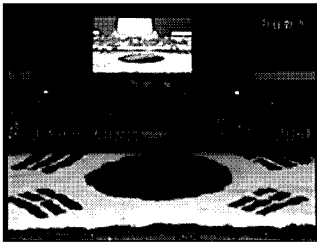
제작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영상제작반 INKY (경북 포항)

상영시간 : 8분

내용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크게 사랑 받고 있는 태극기, 태극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과 애국심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변함 없이 태극기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가까이 접하면서도 태극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구성 : 나레이션과 인터뷰가 적절히 배치된 복합구성

36) 강승엽, “TV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있어서 나레이션과 인터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4호, 2001, p.89.



BGM, 자료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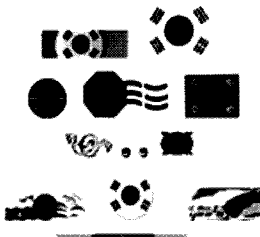


Title : 2002 태극기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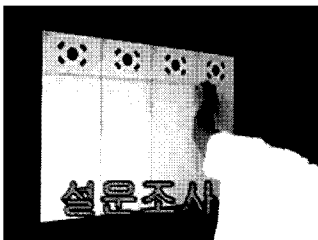


Q) 태극기로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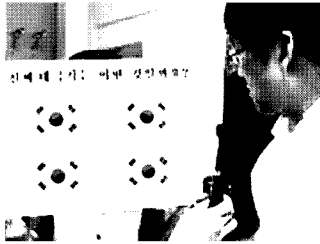
A) 우리나라 국기이고, 예쁘기 때문이다.



N : 발빠른 문화의 선두그룹 인터넷도 빠질 수 없다. 유행에 발맞춰 태극기를 응용해 디자인한 캐릭터, 그래픽,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N :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여고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A) 남자 : 2번 같습니다.



Q)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A) 헤이그 특사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



N ; 월드컵을 계기로 비로소 태극기가 온 국민
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지만 월드컵이 아니
었더라도 언젠가는 당연히 태극기가 지금처
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한다.

도판 6.

2002 태극기 보고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위 작품 <2002 태극기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해설(60%)과 인터
뷰(40%)가 어느 정도 조화롭게 구성된 작품이다. 위 양식분류 조사
에서도 보듯이 해설양식이 청소년 작품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어느 하나의 양식
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서너 개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은데, 이 작품 또한 해설양식과 상호작용양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성찰양식의 일부분도 다소 보이

고 있다.

하지만, 전지적 시점의 해설자가 작가의 구성과 의도에 따라 설정된 주제를 실타래를 풀어 나가듯이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먼저 2002 한일 월드컵의 자료화면을 보여 주면서 작품의 주제가 “태극기”임을 영상과 나레이션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또한, ‘태극기로 응원을 하는 이유’와 ‘태극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뷰 기법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 질문의 결과를 토대로 해설자가 태극기의 역사나 태극기 제작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해설자가 태극기를 사랑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란 설득과 호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의 경우도 해설을 뒷받침하듯이 순차적 편집이 아니라 다양한 신(scene)을 시간적·공간적 순서나 질서를 중요시하지 않고 해설의 논리에 더욱 충실하고자 편집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해설을 뒷받침해 줄 현장을 사운드의 사용이 저조하고, 배경음악을 이용하여 극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인터뷰 또한 단답식의 질문이 다수 나오는가 하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등 인터뷰기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나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주제를 부각시켜 청소년들의 생각을 ‘설득’보다는 ‘호소’의 목소리로 해설양식을 취하고 있다.

(2) 관찰양식 사례분석

제목 :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제작 : 정윤채

상영시간 : 1분 35초

내용 : 농사를 짓는 농민의 어려움과 쌀 수입 개방으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을 농촌의 어려움을 영상으로 표현해본다.

구성 : 영상과 배경음악을 이용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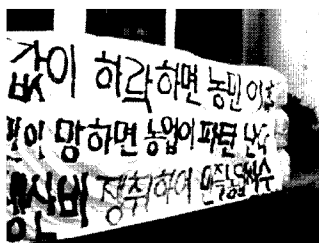
Title :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BGM, Sound Effect



BGM



BGM

도판 7.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정윤채)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이 작품은 해설이 완전히 배제된 채 배경음악과 영상만으로 스토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옛날 농민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효과음과 자료화면을 통해 보여주고(35초간), 중반부에서는 수확 후 낱알을 건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30초간), 후반부에서는 논두렁에 걸린 깃발과 현수막, 그리고 국회 앞에 걸린 현수막과 대자보를 통해 쌀 수입 개방시 겪게 될 농촌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15초간)해주고 있다.

관찰양식은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어떤 개입도 회피하고, 어떤 의도도 없이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진실을 전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카메라의 눈이 이미 어떤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결론을 내려한다면 관찰자가 아닌 객관성을 가장한 주관적 의미를 전달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과 농촌의 전경에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의 아픈 현실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 그 스토리의 전개상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영상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제작자가 롱 테이크(long take) 기법을 이용하여 최대한 객관적 위치를 영상을 통해 지키고,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관찰양식으로 분류하였다.

(3) 상호작용양식 사례분석

제목 :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장려상 수상작)

제작 : 동래고등학교 방송반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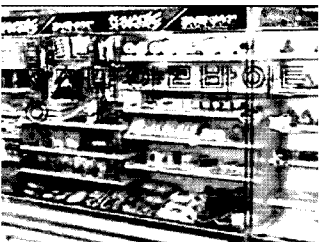
상영시간 : 14분 20초

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묻고, 아르바이트의 장단점, 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이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성 : 인터뷰 중심의 취재구성



BGM



Title : 청소년 아르바이트



Q)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에는 시간관리가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학생 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 본 경우가 있지만 학업에 지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Q)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일찍이 사회 경험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사회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가 우선시 되고, 목표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절대 반대합니다.



Q) 주로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A) 음식점에서도 하고 레코드 가게에서도 했어요



Q) 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A) 수학여행 등 돈이 많이 드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도판 8.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래고등학교)

상호작용양식은 출연자의 진술이나, 대화의 교환, 그리고 시범적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편집은 해설을 쓰지 않는 대신에 개개인의 관점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차별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 작품은 해설보다는 상호작용양식의 특징인 인터뷰가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인터뷰가 약 50%(약 7분간)의 비율로 극의 전개를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해설은 인터뷰의 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분석과 결과에 대한 보충 설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는 주로 주제인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서는 찬·반 의견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학생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의견을 첨가시킴으로써 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주목적이 무엇인가’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경험과 돈벌이라는 두 문제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결론을 내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남겨둔다. 본 작품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과 일방적 제시가 아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유도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띤다. 단지, 인터뷰에서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고, 상투적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인터뷰의 기법이나 공부의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인터뷰 중심의 상호작용 양식에 속한다고 하겠다.

(4) 성찰양식 사례분석

제목 : 가정폭력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제작 : 성남고등학교 방송반 (경기 성남)

상영시간 : 7분 10초

내용 :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 교육을 함으로써 가정파괴 현상을 막아보고, 나아가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성 : 나레이션과 인터뷰를 통한 취재구성



Title : 가정폭력

N ; 친구는 나를 보고 너무 힘이 든단다.



A) 집 나온 지 2주정도 됩니다.

맞은 건 어려서부터인데 하도 습관처럼 맞아서 반항도 잘 못하겠고, 요번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집에서 죽을까봐 살라고 뛰쳐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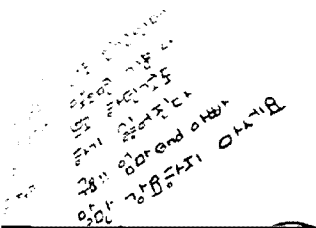
A) 그런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그대로 폭력을 학습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N ; 2002년 7월 25일 나는 여성의 전화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워크숍을 찾아갔다.



A) 가정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릴 생각이예요.



N ;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았다.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것과 가정과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도판 9. 가정폭력
(성남고등학교)

<가정폭력> 이 작품은 처음 도입부터 자신의 경험과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나는 많이 보았다. 내 주위에 집에서 맞는 친구들을,
10명중 4명,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맞아왔다.
때리는 사람들은 알까?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닮아간다는 것을...
나는 어렵게 한 친구를 만났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를
친구는 나를 보고 너무 힘이 든단다.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와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했어야 했던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다. 인터뷰를 통한
이야기 전개가 다소 상호작용양식에 속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경험
과 카메라를 주관적인 기록물 자체로 간주하며 자신의 위치가 단순
히 관찰자가 아닌 주관적 위치를 차지하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나레이션을 통해 의식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친구들의 인터뷰와 가정폭력에 대한
연수 장소를 직접 찾아가 작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
보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였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연
수자를 통한 인터뷰 속에서 학교교육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의 부재와 필요성을 강한 어투를 주장한다. 또한 자기 성찰적 모습
이나 강한 자아의식을 표방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는 성찰양식적 요소로 보여준다.

(5) 수행양식 사례분석

제목 : 수림(水林)³⁷⁾

37) 다큐멘터리 유형 사례분석에서 이미 소개된 작품으로 여기에서는 분석사례
만을 논한다.

빌 니콜스의 양식들 중 구분하기가 가장 힘든 양식이다. 니콜스 자신도 서술에 확신을 가지기 힘들어 할 정도로 이론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지는 양식이라고 한다. 또한 황동미의 논문에서도 이 양식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위 작품 <수림>을 선정했지만, 단지 작품의 내용에서 해설자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대로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사회의 전반적인 객관적 사실로 이끌어내 공감하려는 면을 보인 점에서 이 양식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도입부에서는 맑고 깨끗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작가 자신이 살고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풀어나간다. 중반부부터 후반부에서는 그런 환경 파괴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책임과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환경에 대한 참다운 메시지를 전하며 인간이 곧 자연이라는 담론적 문제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양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양식을 연구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낮은 단계의 지위에서 구해내 나름대로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장르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작품 내부의 표현방식을 찾아내 그 비슷한 일련의 공통된 표현양식을 정리해냄으로써 그 표현양식을 낳았던 이데올로기적 배경,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³⁸⁾

그러나 이상과 같이 청소년 영상물의 양식구분에 있어서 압도적으

38) 황동미, 앞의 논문, p.24.

로 해설양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의 표 13. 참조)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상표현의 방법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영상표현 보다는 극의 전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목적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고찰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현실 속에서 표현해 보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들이 많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작품이라기보다도 사회적 이슈와 현상을 가벼운 터치 형태로 다루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극의 전개상에서 인터뷰 또는 일방적 주장이나, 답을 요구하는 형태, 구태의연한 인터뷰가 많다는 것이 결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VJ영상물의 영향으로 인해 심도 있고, 차분한 감의 영상물이 아니라 그리 깊지 않은 내용으로 다룬 기획취재물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관심에 대한 노력은 장점으로 나타나나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총 48편(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8편, 청소년 화랑영상제 28편, 동해 청소년 영상제 12편)의 다큐멘터리 부문 영상물에 대한 출품 현황 및 유형별, 그리고 양식별로 분류해 보았다.

다소 장르나 양식에 대한 약간의 혼용의 경우 분류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상물이 제시하려는 메시지와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해석 양식에 따라 그 점에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보았다.

먼저,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각 장르별로 분류해 보았다. 장르별 분류 결과 위에서 제시된 3개의 영상제 모두 공통적으로 ‘드라마’나 ‘단편영화’류의 영상물이 많이 출품되었다³⁹⁾.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드라마에 비해 적은 수량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과 사고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큐멘터리 유형분석에 관한 결과이다. 다큐멘터리 유형으로는 사회다큐멘터리, 휴먼다큐멘터리, 역사다큐멘터리, 문화다큐멘터리, 과학다큐멘터리, 자연다큐멘터리 등으로 6개 영역을 정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사회다큐멘터리와 휴먼다큐멘터리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품비율이 각각 30%

39)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영상비엔날레 : 총 작품수 42편 중 31%를 차지한 13편, 청소년 화랑 영상제 : 총 110작품 중 45%를 차지한 49작품, 동해 청소년 영상제 : 34작품 중 41%를 차지한 14작품.

전후(표 6, 표 7 참조)를 차지할 만큼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다. 하지만 과학다큐멘터리나 자연다큐멘터리 부문 출품의 경우 화랑 청소년 영상제에 출품된 1편만이 출품된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유형간의 수량적 불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큐멘터리 양식분류에 관한 결과이다. 양식분류에 있어서는 빌 니콜스의 양식연구에 따라 해설양식, 관찰양식, 상호작용양식, 성찰양식, 수행양식 등으로 나누었으며, (표 11,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해설양식이 다른 양식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영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단순히 말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2. 문제점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영상을 제작했다고는 하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에 이르러서는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완성도 또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영상물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결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영상기법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이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있어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기존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루이스 자네티(Louis Giannetti)가 설명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청소년 영상물에서 드러나는 특

정들을 살펴보면, 세분화된 쇼트, 편집 강조, 설명적 경향, 인터뷰 선호 등은 분명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청소년 영상물의 전반적인 특징은 해설양식이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많으며, 편집을 강조하고 인터뷰를 중시한다는 것이다.⁴⁰⁾

이를 토대로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다큐멘터리 부문의 영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르의 혼용이 많았다. 유형분류에서도 지적했듯이 포항고등학교의 <교복, 그리고 우리들>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교복’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면에서는 사회다큐멘터리를 분류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교복을 입자’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교복의 역사적 사실, 교복 문화에 대한 학생들과 어른들의 생각, 앞으로의 교복에 대한 추세 등을 논할 때는 문화다큐멘터리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서술형식들이 많았다. 또한, 영상만을 위주로 하여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해설을 배제한 경우 - 서령고등학교의 <서령고 기악부>; 청소년 화랑 영상제 출품작,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영화란 무엇인가>; 동해 청소년 영상제 출품작 - 는 뮤직비디오적 기법이 차용되어 있어 이런 종류의 영상물을 분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워크 등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디오 카메라의 물리적 특성이나 영상문법상의 문제로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 자체를 우리 청소년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해 청소년 영상제를 준비하면서 조사되었던 포항YMCA의 김재석

40) 서곡숙, 앞의 글, p.393.

의 방송관련 실태 보고서⁴¹⁾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을 위시하여 경주, 영덕, 울진 소재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영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비율에 비해 2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교육 자체도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송반을 중심으로 간단한 영상제작에 관련된 일부 교육만이 이루어질 뿐, 정상적인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조사 대상 122개 중·고등학교 중 포항의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⁴²⁾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카메라 조작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카메라의 조작에서 클로즈업이나 줌기능의 과도한 사용이다. 이는 초보자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들이며, 이에 따른 흔들림이 많아 안정된 화면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들이다. 또한 인터뷰 기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순히 ‘네’라는 대답이나 질문과는 상관없는 대답,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답변을 강요하는 식의 질문, 시각적 표현에 따른 오프 스크린(off-screen) 기법이나 온 스크린(on-screen) 기법⁴³⁾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편집상에서도 ‘점프 컷(jump

41) 김재석, “포항MBC 방송영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권 중·고등학교 방송관련 실태 조사보고서”, 포항YMCA. 2002.

본 보고서는 동해 청소년 영상제를 기획하면서 조사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42)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학교로서, 2001년 사진인쇄과가 영상그래픽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2년 3월부터 본 교과과정에 영상제작교육을 포함시켜 2,3학년을 중심으로 학년당 6시간씩 주당 총 12시간의 영상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43) 오프 스크린(off-screen) 기법 : 화면 내에서의 질문은 들리지 않고, 응답자가 응답하는 모습만 보이는 기법.

온 스크린(on-screen) 기법 :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방식의 인터뷰 기법.

cut)'⁴⁴⁾이 많아 시각적으로 무난한 영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나친 배경음악의 사용이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연속적인 음악의 사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주제에 대한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음악을 이용하여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대체시키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몇몇 작품에서 나타난 사항들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가요나 팝송 아니면, 유명한 고전음악을 여기저기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감정의 고조부분에서는 사운드가 강력한 가요나 팝송을, 균형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를 요할 때는 차분한 경음악이나 고전음악 등을 사용해 음악의 지배적이고 관습적인 사용이 많았다.

네 번째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부족이다. 먼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 고가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우와 제작비의 조달에서의 문제도 있다.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기획에서 완성까지 최소한 한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가 용돈으로 조달하여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⁴⁵⁾에서처럼 시나리오나 기획서가 채택될 경우 약간의 제작비용을 지원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경우는 불가능한 사례이다.

다섯 번째, 충분한 자료조사나 사전준비 즉 준비단계(*pre-production*)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준비단

44) 점프 컷(jump cut) : 편집에 있어서 연속적인 줄거리 가운데 그 어느 한 부분을 삭제할 경우 장면 사이의 편집점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고 앞 뒤 그림의 연결부분이 튀는 경우를 말한다.

45)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http://www.siyff.com> 참조.

계가 미흡한 경우에서의 영상제작은 부실하고 완성도가 떨어진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영상물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흔히 청소년들을 N세대, 영상세대라고 하지만, 대학입시라는 현실적인 관문아래에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할 뿐, 정작 현 교육체제에서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이라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대학입시와 직결된 상태에서의 준비 없는 영상제작은 질적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논리 전개의 소홀함이 지적된다. 즉 스토리나 나레이션의 기본이나 구성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대학입시라는 관문에서 준비 없이 제작된 영상물이라고는 하지만, 기승전결이나 서론·본론·결론 등의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없고, 단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호응도 심지어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정보만을 나열할 뿐 사건 전개나 사건 해결, 그 다음에 일어날 예견, 대안책이 전혀 없는 영상물이 매우 많다는 아쉬움이 지적된다.

1987년 서울 YMCA가 처음으로 영상교육을 시작⁴⁶⁾한 이래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 사회단체나 일부 학교에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전반에 걸친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영상제작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영상제작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빨리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적인 지도가 아닌 “왜 찍어야 하는가”를 생각

46) 1987년 서울YMCA가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영상교육을 시도하였다. 1987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약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영상제작교육’과 ‘비판적 시청교육’을 주제로 실시하였고, 당시 약 16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였다.

하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자면, 청소년들 자신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이거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된다. 대학입시에서 벗어나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영상제작을 위한 기자재나 교육 시스템 등 다 소나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꿈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영상제에 출품되었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지켜 본 결과, 다큐멘터리 영역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다보면 ‘다큐멘터리’라면 웬지 따분하고,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영상제작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는 분야가 뮤직비디오나 광고인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상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고자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 영상을 제작하는 목표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 능력과 사회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영상이란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일 것이다.

영상제에 자신들의 영상물을 출품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상제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제에 출품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가운데 영상제작의 경험을 습득하고, 자신

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영상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표현양식의 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영상제작 과정을 통해 스스로 ‘왜, 영상물을 만드는지?’를 사고하고, 동료애를 느끼며,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요즘은 한 달이 멀다하고, 각종 청소년 영상제가 개최된다. 물론 모집분야 중 드라마 부문이 가장 많이 출품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큐멘터리 영상물 또한 무시 못할 만큼의 많은 양이 출품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하나씩 시청하다 보면,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면을 많이 보게 된다. 다큐멘터리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시간 작업을 요하는 부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영상제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출품작들의 수는 영상제 하나당 1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된다. 이중 몇몇 영상제만이 비디오테잎이나 CD 타이틀⁴⁷⁾로 제작하고, 인터넷상에서 작품을 보여주고, 보급할 뿐 대부분의 영상제가 출품작들에 대한 관리와 보관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출품작의 수량을 보고 영상제가 성공했느니 하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영상제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함께 문화의 새로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7) 본 연구의 조사대상 7개 영상제 중 동해청소년영상제와 대한민국 영상비엔날레 2개의 영상제만이 수상작을 중심으로 CD 타이틀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동훈,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대경출판, 1999.
- 김석호, 「TV와 영화제작 속으로」, 숲속의 꿈, 2001.
- 김영인, 김우룡, 「방송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 김우룡, 「방송학강의」, 나남, 1990.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8.
- 김택환 외 7명, 「세계미디어교육모델」, 한국언론재단, 2000.
- 디지털편집업무발전연구회, 「비디오편집전문용어사전」, 세창출판사, 2001.
- 문화학교 서울,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문화학교 서울, 1996.
- 박순웅, 「쉽게 배우는 영상-고등학교용」, 한국언론재단, 2002.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사전」, 한울아카데미, 1997.
- 배종대, 「당신이 바로 디지털방송PD」, 박문각, 2001.
- 배종대, 「방송환경과 TV제작의 이해」, 홍익미디어플러스, 1998.
-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손룡, 「현대방송이론」, 나남출판, 1989.
- 안정임, 전경란, 「미디어교육의 이해」, 한나래, 1999.
- 이정춘, 「미디어사회학」, 이진출판사, 2000.
- 이준일, 금동호, 김영식, 「영상매체학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장호준, 「해보자! 영화만들기」, 문학과 지성사, 2001.
- 전평국, 「영상다큐멘터리론」, 나남출판, 1995.

- 참교육영상집단,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Free BE 출판사, 2000.
- 최양묵,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한울아카데미, 2003.
- 황인선, 「프로영상제작실무」, 미진사, 1998.
- 수잔 헤이워드, 「영화사전-이론과 비평」, 이영기 역, 한울아카데미, 2003.
- 돈 템스콧,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유영만 역, 물푸레, 1999.
- 루이스 자네티, 「영화의 이해-아론과 실제」, 김진해 역, 현암사, 2002.
- 마르크 페로, 「역사와 영화」, 주경철 역, 까치, 2000.
- 스가야 아키코, 「미디어 리터러시」, 안해룡, 안미라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안랜 조젠탈, 「다큐멘터리 제작론」, 안정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에릭바누, 「세계다큐멘터리 영화사」, 이상모 역, 다락방, 2000.
- 탐 덕슨, 「전환기의 미디어교육」, 송우철 역, 나남출판, 2002.
- 폴 로다, 「기록영화론」, 유현목 역, 영화진흥공사, 1994.
- G. 밀러슨, 「비디오프로그램제작」, 한국방송개발원 역, 나남출판, 1995.
- Paulu, B. British Broadcasting : Radio and Television in the United Kingdom,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1956)
- Bluem, W. Documentary in American Television(N.Y. : Hastings House, 1965)

Robert L. Hilliard, Writing for Television and Radio (4th ed),
New York ; Hasting house, 1981.

논문

강선모, “텔레비전 VJ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0.

김지윤, “텔레비전 소프트 다큐멘터리 장르 형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2.

박영순, “시각디자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논문, 1995.

배혜린, “한국 N세대 영상교육 현황과 열린 교실의 대안으로서의
영상교육”,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논문,
2000.

여면구,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6.

이정섭, “TV 다큐드라마의 형식적 메카니즘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5.

장창관, “1인 제작 시스템의 영상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진영상정보학과 석사논문, 2000.

황동미,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양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석사논문, 1995.

강승엽, “TV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있어서 나레이션과 인터뷰의 상
관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4호, 2001.

김경식, “청소년 영상교육의 현황과 대안연구”, 영화연구 17집,

한국영화학회, 2001,

김연식, “TV 프로그램에 있어서 6mm 디지털 제작의 의미와 전망”,
언론과학연구 제3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3.

서곡숙, “N세대 영상물의 한 양상연구”, 영화연구 16집, 한국영화학
회, 2001.

오진곤, “영상제작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교육연구, 한국영화교
육학회, 1999.

기타 자료

강만석 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정착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
원, 1998.

김성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방송문화,
1993년 7월호.

김재석, “포항MBC 방송영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권 중·고등학
교 방송관련 실태 조사보고서”, 포항YMCA. 2002.

김종현, “카메라, 이미지 시대 아이들의 펜”, 제1회 참교육실천보고
대회 보고서, 2001.

남성우, “TV다큐멘터리-그 논의를 위한 사적 고찰(1)”, 방송시대,
1992년 가을호.

방송위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1993.

원용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대한 장르적 이해”, 99 봄철정기학술
대회, 한국방송학회, 1999.

이동훈, “위기에 처한 유럽의 고급 다큐멘터리”, 동향과 분석 통권
106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0.

한국방송진흥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다큐멘터리,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제3회 PD포럼, 2001.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moim.ktu.or.kr/eduhop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캠퍼스
<http://my.dreamwiz.com/css2586> 디지털비디오저널리스트
<http://www.chosun.ac.kr/~cubm/kgs/main.php> 조선대학교
<http://www.fbc.or.kr> 방송문화진흥회
<http://www.fisak.com> 한국영화학회
<http://www.kaeib.or.kr>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http://www.kaku55.co.kr> 이강국의 생명연대.
<http://www.kbc.or.kr> 한국방송위원회
<http://www.kbi.re.kr> 사이버방송영상정보센터
<http://www.kpf.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siyff.com>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http://www.vjcenter.com> VJ 센터
<http://www.3ccd.tv> 스탠바이Q
<http://www.ubf.or.kr/news/206/206-15.htm>,
<http://www.dohwa.or.kr/5-5.htm>

(부록1)

청소년 화랑 영상제 다큐멘터리 부문 출품작 명단

제 목	제작 및 연출	학 교 명
10분의 사랑나누기	오 민 석	성남고등학교
2002 태극기 보고서	한 대 숙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가정폭력	오 민 석	성남고등학교
그날! 당신의 외침	이 은 연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그는 살아있다. 고로 그는 존재한다	신 준 영	개인
농민의 결실과 생각하지 않았던 실망	정 윤 채	개인
도시의 꿈	정 진 수	대구정보관광고등학교
마라톤 대회에 꼭 있는 사람들	류 제 우	강남종합고등학교
배움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신 용 수	서일고등학교
분노	전 배 형	개인
사랑의 울타리 희망 맹아원방문	정 재 원	송실고등학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류 정 수	유성여자고등학교
서령고 기악부	방 송 반	서령고등학교
수능 파이팅	방 송 반	수원청명고등학교
수림(水林)	방 송 반	보영여자고등학교
수변공원	장 고 은	대구정보관광고등학교
술래잡기	윤 자 연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신암 선열공원	변 지 영	대구정보관광고등학교
아직은...하지만,	정 아 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양성평등 아직인가	오 민 석	성남고등학교
예뻐야 산다	오 윤 선	선정고등학교
제2의 독립을 위해	방 송 반	원미고등학교
천년의 숨결 원주한지	김 수 훈	대성고등학교
청소년 아르바이트	방 송 반	동래고등학교
학생문화축전	방 송 반	대구관광정보고등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신 동 운	아현산업정보학교
“선생님” 고경관념을 깨자	임 민 형	개금고등학교
“우리는 지금”	정 효 민	예문여자고등학교
합 계	28작품	

(부록 2)

동해 청소년 영상제 다큐멘터리 부문 출품작 명단

제 목	연 출	학 교 명
우리고장 선열들의 유적지 탐방	정 우 정	송라중학교
대화가 필요해	조 선 화	금천중학교
KGM 포커스	송 경 민	경주여자중학교
우리들의 추억만들기	손 중 곤	신광중학교
신광독서영상제 모음	손 중 략	신광중학교
A.D. in Mind	박 진 리	안동여자중학교
영화란 무엇인가?	김 빛 나 라	포항제철고등학교
2002 태극기 보고서	한 대 숙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아직은... 하지만,	정 아 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작은 새들의 등지	정 아 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그들만의 패션스토리	윤 현 정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그리고 우리들	정 의 석	포항고등학교
합 계	12작품	